

대구 신천(新川) 유로에 관한 새로운 해석

전 영 권*

A New Interpretation about the River Channel of Shincheon in Daegu

Young-Gweon Jeon*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고문헌과 고지도 등을 통해 신천 원유로의 위치를 고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778년 이전의 신천이 현재의 신천 유로와는 달리 대구 중심부를 흘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둘째, 현재의 신천이라는 지명은 1778년 대구 판관 이서가 새롭게 조성한 물줄기라는 의미에서 그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셋째, 신천의 한 분류로 인식되어온 대구천은 그것의 발원지가 신천과는 다른 앞산의 계곡(삼정골 또는 강당골 일대)과 그 일대의 작은 구릉지로 판단된다. 넷째, 일제강점기 때 대구천은 소멸되었으며, 다만 대구천 일부가 이천천으로 유로가 변경되어 신천으로 유입하고 있다. 다섯째, 신천의 유로는 역사시대 이래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

주요어 : 신천, 유로, 1778년, 분류, 대구천, 이천천, 역사시대

Abstract :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bout the river channel of Shincheon(river) are as follows : First, the argument that Shincheon had a different river channel from existing one before 1778 would be wrong. Second, the origin of the place name, Shincheon has been traced up to the year of 1778 also would be wrong. Third, Daegucheon(river) regarded as a distributary of Shincheon would be the different stream originated from Samjeong valley and near by hills. Forth, Daegucheon had mostly dried up and disappear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times while part of Daegucheon had changed its channel into Icheoncheon(river). Fifth, the river channel of Shincheon since the historic age has been unchanged.

Key Words : Shincheon, River channel, The year of 1778, Distributary, Daegucheon, Icheoncheon, The historic age

1. 서론

인구 250만의 거대도시인 대구광역시가 자리잡고 있는 대구분지에는 북쪽을 에워싸는 팔공산지와 남쪽을 에워싸는 비슬산지¹⁾ 그리고 대구분지를 동에서 서로 흘러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금호강이 있다. 특히 금호강은 팔공산지와 비슬산지로부터 각각 발원하여 본 하천으로 합류하는 10여 개의 지류를 가진다. 이 중에서도 동화천과 신천은 팔공산지와 비슬산지를 금호강과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지류이다. 부연하면 대구의 생태축은 북으로부터 남에 이르면서 팔공산지-동화천-금호강-신천-비슬산지로 구성된다(그림 1). 이 중에서 본 연구 대상인 신천은 대구의 중심하천으로서 또한 대구시민들의 생태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구를 대표하는 지형경관 랜드마크로서 중요하다. 이처럼 신천이 대구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신천의 유로가 대구시민들에게 잘못 인식되어져 온 부분이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필자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및 지리학자들의 무능력과 태만도 한 몫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번 기획에 대구시민들이 기존에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신천의 유로에 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관련 고문헌, 고지도, 주민 인터뷰,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을 기존 신천 유로에 대한 반증자료로 제시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기존에 잘못 인식되고 있는 신천의 유로를 바로 잡는데 있어 가장 합리적인 수단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구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신천, 그 유로에 대한 논리적인 정립은 대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jeonyg@cu.ac.kr)

2. 신천의 위상

대구분지를 구성하는 생태공간 중 신천과 앞산은 대구분지에 발달하는 다른 하천과 산지에 비해 대구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음이 고문헌과 관련 자료로부터 잘 알 수 있다. 신천과 앞산이 대구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여겨진 이유는 팔공산과 금호강 그리고 동화천 등지에 비해 신천과 앞산이 과거 대구부(大丘府)의 중심지인 경상감영과는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이다. 또한 금호강은 대구지역 거주자들에게는 팔공산과 동화천으로 접근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1736년(영조 12년) 경상감사인 민응

수(閔應洙)가 조정에 장계를 올려 축성한 대구읍성의 공간적 분포가 현 대구광역시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로 에워 싸이는 공간에 해당하며(그림 2), 그 공간 내부에 대구부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였던 경상감영²⁾이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상감영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신천과 앞산이 대구부 주민들에게는 매우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천과 앞산은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구 지역민들의 가슴 중심에 자리하면서 지역민들에게는 수원지로서 또한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매우 중요한 생태기능을 담당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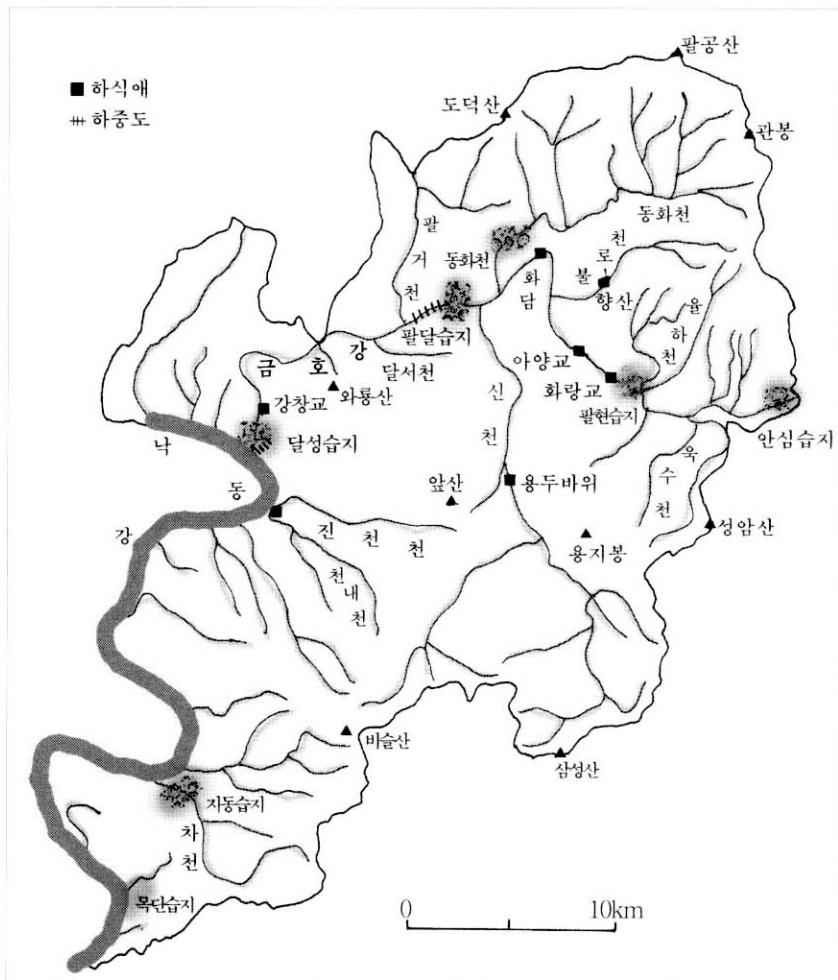


그림 1. 대구의 주요 지형(습지·하식애·하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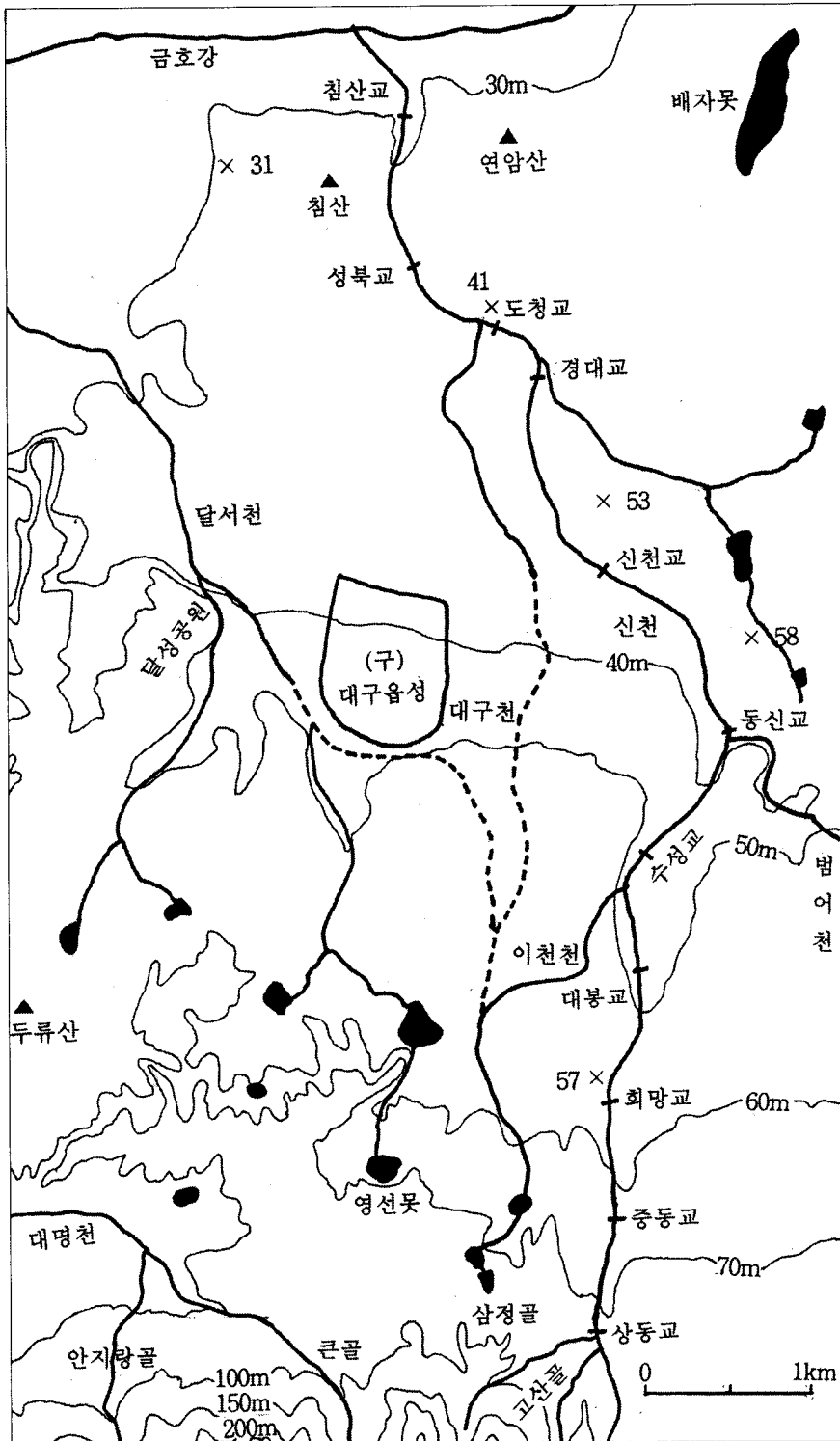


그림 2. 1957년의 대구 신천과 주변 수계
(붉은 점선은 1957년 이전에 복개된 대구천의 일부)

3. 신천의 지리적 특성

대구 분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금호강으로 유입하는 신천은 그것의 발원지가 두 곳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우미산 남서쪽에 위치한 밤터재(570m) 부근이며, 또 다른 하나는 비슬산 북동사면에서 발원하는 총 길이 13km에 달하는 용계천 상류이다. 밤터재에서 출발한 신천은 대구시 달성군 용계동 가창교 남쪽에서 신천의 지류인 용계천을 합류하여 대구시 북구 침산동 침산교 부근에서 금호강으로 합류하는 유역 면적 약 159.8km², 길이 약 27km에 달하는 대구의 중심하천이다.³⁾

신천 유역의 대략적인 분수계는 동으로는 상원산-동학산-병풍산-대덕산-당고개-두리봉-모봉-형제봉-효목공원-신암공원-연암산, 서로는 유역 내 최고봉인 비슬산-청룡산-달비고개-월배산-앞산의 고산골 서편 능선-대봉공원-침산, 남으로는 비슬산-헐티재-통점령-밤터재-삼성산-상원산으로 이루어진다. 즉 신천의 유역 형상은 동·서·남부가 산지로 둘러 싸여 있는 반면에 북쪽이 터여 있는 일종의 팔발굽형이다.

신천이 통과하는 지역 중 대구 일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들로는 소(pool)와 여울(riffle), 습지, 포인트바, 하식애, 기반(퇴적암)하상, 공룡발자국 화석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는 신천의 대부분은 인위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많아 자연상태의 지형경관은 많이 사라진 상태이다.

4. 신천 지명과 유로에 대한 기존의 인식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대구 중심부를 흐르면서 신천의 발원지와는 다른 하천으로 대구천과 달서천이 존재한다. 또한 신천으로 바로 유입하는 지류로는 대구천과 이천천⁴⁾이 있다.

대구천은 앞산의 삼정골과 인근의 소규모 구릉지에서 발원하여 흐르면서 봉덕시장 부근에서 곧바로 북류하여 건들바위 근방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흐른다. 이 중에서 한 줄기는 건들바위, 유신학원 네거리, 구 중앙도서관, 대구광역시청 옆, 칠성시장을 지나 도청교 하류 약 150m 부근에서 신천으로 유입하고(그림2, 3), 다른 한 줄기는 건들바위,



그림 3. 도청교 하류 약 150m 지점에서 신천으로 유입하는 대구천(현재 북개된 상태임)

덕산동의 구릉지 가장자리, 반월당 네거리, 계산성당 앞을 지나 대명동과 남산동 일대의 구릉지에서 흘러내리는 또 다른 하천과 동산(東山) 부근에서 합류한 다음, 오토바이 골목으로 유명한 인교동을 지나 달성공원 앞에서 다시 내당동, 비산동 구릉지(두류공원이 위치하는 두류산 일대)로부터 흘러나오는 달서천과 합류하여 침산동에서 금호강으로 유입한다.

한편 1924년에 발행된 조선교통지도에 의하면 대구천과 이천천의 구별이 명확하다(그림 4). 그러나 조선교통지도가 발행된 이후 대구는 일본인에 의해 추진된 대구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의 유로변화가 생겨나게 된다. 즉 대구천 발원지 일대로부터 이천교에서 대백프라자가 위치하는 신천 쪽으로 높은 제방을 쌓아 대구천의 물 흐름을 일부 돌린 이후부터 건들바위 앞 대구천의 흐름은 끊어진다. 대신 대구천으로 흐르던 물은 이천천으로 유로가 변경되어 신천으로 유입되고(그림 5), 그 일대는 습지로 변한다. 이러한 습지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지속되어 미나리밭으로 이용되었다. 또 습지로 될 무렵의 주변 경관은 절벽 아래의 습지 가까이는 논과 밭으로, 약간 높은 평지는 과수원으로 이용되었고, 민가는 병영(兵營)앞 길에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그 후 습지조차 한국전쟁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부터 각종 개발로 인하여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건들바위에서 북쪽인 유신학원 네거리, 시립도서관, 시청 옆, 칠성시장 안을 통과했던 대구천도 이천교 일대에 축조된 제방으로 인하



그림 4. 1924년 8월에 발행된 조선교통지도 (대구천과 이천천의 구별이 뚜렷하다)

여 흐름이 막히게 되면서 거의 건천화 되어 1930년대의 대구도시구획정리 때 흔적조차 사라진다).

이처럼 신천의 지류인 대구천과 이천천의 발원지는 신천과는 달랐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천의 원유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우미산 남서쪽에 위치한 반티재 부근과 비슬산 북동사면에서 각각 발원하여 흘러오던 신천이 상동교 부근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현재의 유로를 또 다른 하나는 대구천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둘째 상기의 발원지로부터 흘러나온 신천이 대구의 한 가

운대를 관류했던 대구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신천 원유료에 대한 견해 중 전자는 조선 정조 2년인 1778년 대구 판관(判官) 이서(李澈)가 사재를 들여 상동교 부근에서 분류하는 신천의 물줄기 중 하나인 대구천 일대에 제방을 쌓아 현재의 신천으로만 물을 흐르게 하여 대구를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후자는 신천의 원유료가 대구천이었는데, 대구 판관 이서가 사재를 들여 현재의 신천으로 새로운 유로를 만들어 이곳으로 물이 흐르게 하여 새롭게 생겨난 하천이라는 의미에서 신천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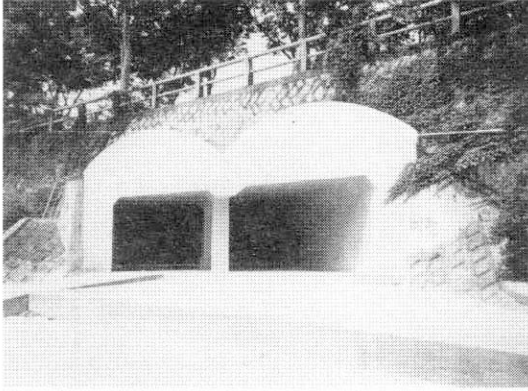


그림 5. 대백프라자 옆을 지나 신천으로 유입하는 이천천(현재 복개된 상태임)

는 견해이다.

5. 잘못 인식되고 있는 신천의 지명과 유로에 대한 반론

1) 지형도 및 지형조사를 통해서 본 반론

대구 지역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 중 본 연구에 이용할 만한 자료로는 1910년대에 일본인에 의해 제작된 축척 1/50,000 지형도와 1964년 육군 측지부대에서 발간한 1/25,000 지형도가 있다. 이중에서도 신천 유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는 후자가 보다 유용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후자의 지형도를 기본도로 하여 1910년대의 지형도와 1924년에 발행된 조선교통지도를 참고하여 신천을 포함한 주변 수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내 보았다(그림 2).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천의 원유로가 상동교 부근에서 분류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지형적으로 볼 때 대구천 일대가 신천 일대보다 지대가 높다. 즉, 대구천 쪽에서 신천 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어도 신천의 물이 대구천 쪽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구자의 현장조사 결과 고산골로부터 나오는 물과 인근의 구릉지로부터 나오는 물은 모두 신천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2) 고지도 및 고문헌을 통해서 본 반론

신천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겨난 하천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는 대구 판관 이서가 제방을 축조했던 1778년 이전에 발간된 대구 고지도와 고문헌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팔도여지지도(八道輿地之圖, 16세기 후기), 광여도(廣輿圖, 1698년~1703년), 해동지도(海東地圖) 중 대구부지도(18세기 중엽), 좌해분도(佐海分圖, 18세기 중기), 동국지도(東國地圖, 18세기 중기) 등에 표현된 신천의 위치는 현재 신천의 위치와 동일하다.

둘째,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誌, 1425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 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1년)의 대구편에는 이미 신천이라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조선왕조실록 성종편 기록에 의하면 성종 12년인 1481년에 '대구부사 최호원(崔灝元)이 풍수의 학설을 믿고서 하천의 근원을 막고 백성들의 농경지이다 수로를 만들어 그 곳으로 물이 흐르게 하여,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고 한탄하므로 이명승(李命崇)이 어사로서 그를 파직시켰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성종 12년 1월 22일 :정유). 이 내용을 토대로 신천의 유로변경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수해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기보다는 풍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소규모의 유로 변경에 해당한다. 특히 풍수적으로 볼 때 대구의 진산인 연귀산(連龜山)을 대구천이 관통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연귀산의 맥을 단절하는 대구천 지류 일부를 백성들의 농경지로 유로변경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넷째, 신천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이다. 고문헌을 통해서 봐도 대구 신천의 지명유래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신천이라는 용어가 대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즉 경기도 양주시의 신천(新川)이나 서울 강동구 잠실역 주변의 신천(新川) 등은 셋강의 의미를 가진다. 이 밖에도 평안도와 전남 담양에서도 신천(新川)이라는 지명이 존재하였다. 유추해 본다면 대구의 신천 역시 대구 판관 이서가 제방을 쌓아 물길을 돌린 이후 새로 생겨난 하천이라는 의미에서의 신천이 아니라, 대구부와 대구부의 속현인 수성현 사이를 흐르는 하천이라는 뜻에서 '사이천', 또는 '새천(셋강)'이 한자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신천(新川)'으로 오기되었을 가능성이 크

다. 이러한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경상북도 문경지방에 있는 '문경새재(조령)'가 원래는 이화령과 하늘재 사이에 존재하는 '새'라는 의미인 '사이재'가 '새재'로 축약되면서 한자로 표기되는 과정에 '조령(鳥嶺)'으로 오기된 경우라는 설이 있다.

3) 이공제비(李公堤碑)와 기타 판단으로부터의 반론

신천 원유로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반론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더 예로 들 수 있다.

첫째, 이서가 1778년에 대구를 신천의 수해로부터 막아주기 위해 신천에 제방을 쌓은 곳은 지금의 수성교 일대(해방 이후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방천시장이 조성 될 당시 수성교 부근을 터 파기 공사를 하던 중, 이서의 공덕을 기려 세워둔 기념비가 바로 이 곳에서 발견되었음)이다. 다시 말하면 신천의 물길을 돌린 것이 아니라 신천의 공격사면에 제방을 쌓아 대구가 신천의 범람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도록 했던 것이다. 주지하듯이 일반적으로 특정 공사와 관련된 기념비는 그것이 만들어진 곳에 세워두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사실이다. 즉 수성교 부근의 신천은 하천지형 특성상 공격사면에 해당되어 많은 비라도 내려 홍수가 나면 이곳은 매우 취약지가 된다. 특히 수성교는 조선 중기 당시, 대구읍성(大丘邑城) 바로 남쪽에 위치하는 관계로 이 부분에서 범람이 일어나면 대구읍성 일대 모두가 침수된다. 따라서 이서는 이곳에 제방을 쌓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물길을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이다.

둘째, 현재의 첨단기술로도 새로운 물길을 조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설령 새로운 물길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예를 들면 2003년 매미태풍으로 훼손된 신천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만 해도 약 29억원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비해 과학기술이 크게 뒤졌던 조선시대에 그것도 한 공직자 개인 돈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방대한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판단이다.

셋째, 안동대학교 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호방사적비(湖防事蹟碑)는 조선 정조 1년인 1777년 대홍수 때 유실된 제방인 포항제와 송제를 이듬해에

새로 쌓은 이력을 담아 1780년에 세운 것이다. 이 비문에는 제방 재건에 안동읍의 장정으로도 부족하여 안동부사가 경상도관찰사에 도움을 요청해 도내 각처에서 약 18만 여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길이 약 2.8km, 높이 약 9m 정도로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1777년에는 경상도 일대에 대규모의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데, 신천 수성교 서편 일대에 세워졌던 이공제비 역시 1777년의 대홍수로 인하여 대구부 일대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듬해인 1778년 대구 판단이었던 이서가 사재를 들여 신천변에 제방을 쌓았으며, 이를 기리려는 마음에서 대구부 주민들이 이공제비를 세웠던 것이다.

안동의 호방사적비 비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대규모의 공사를 할 경우 비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신천 이공제비의 비문에는 이서가 제방을 축조했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감사의 글만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을 뿐 제방 축조에 동원된 인력이나 재원 그리고 제방의 규모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신천이 원래 대구 중심부를 흘렀고 이러한 신천의 물줄기를 현재의 위치로 돌렸다는 주장이나 신천의 제방축조 규모가 대규모일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논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신천의 유로를 분석하여 본 결과 신천의 유로는 예나 지금이나 같았다는 것이다. 다만, 신천 수성교 부근이 공격사면에 해당하고 수성교 하류쪽에 대구읍성이 위치하고 있어 수성교 부근에 제방을 쌓지 않으면 대구읍성을 신천의 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수성교 부근에 제방을 쌓아 막대한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신천의 범람으로부터 대구읍성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비교적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대구 중심 생태축으로서 또한 대표적 지형경관 랜드마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천에 대한

학문적 정립은 대구의 정체성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는 일반인들에게 잘못 인식되어오던 대구 신천의 유로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1778년 이서가 신천에 제방을 쌓아 물길을 돌리기 이전의 신천 원유로가 현재의 신천 유로와는 달리 대구 중심부를 흘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현재의 신천 유로로 새 물줄기를 만들어 새로운 물줄기라는 의미에서 신천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신천의 한 분류로 인식되어온 대구천은 그것의 발원지가 신천과는 다른 앞산의 계곡(삼정골 또는 강당골 일대)과 그 일대의 작은 구릉지로 판단된다.

넷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 추진된 대구도시계획 사업의 결과 현재 대구천은 소멸되었으며, 다만 대구천 발원지 일대의 물줄기가 이천천으로 유로가 변경되어 합쳐진 상태로 현재 수성교 근방에서 신천으로 유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신천의 유로는 적어도 역사시대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대구 판관 이서가 사재를 털어 신천에 제방을 쌓아 물길을 돌렸다는 주장은 신천이라는 용어를 새로운 하천이라는 의미로 확대해석 되어온 결과이다. 부연하면 이서는 신천의 공격사면에 해당하는 수성교 일대에 제방을 축조하여 대구읍성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신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謝辭

본 연구를 위해 많은 고지도와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윤용진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님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註

1) 비슬산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청도군, 경남 창원군에 걸쳐 나타

나며, 특히 수성구, 남구, 달서구 일대에 위치하는 앞산은 비슬산지에 포함된다.

- 2)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에 위치하는 경상감영공원으로 과거에는 중앙공원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조선 선조 34년(1601년)에 경상감영이 있던 곳으로, 1910년부터 1965년까지는 경상북도 청사가 있었다. 1970년에 조성된 이 공원에는 당시 경상감사 집무처인 선화당과 감사의 처소인 정청각 등 유서 깊은 건물이 남아 있다. 현재 선화당은 유형문화재 1호, 정청각은 유형문화재 2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 3) 신천의 유역면적과 길이는 축척 1:50,000지형도에서 구적계(Planimeter)와 곡선계(curvimeter)로 측정하여 구한 값이다.
- 4) 1924년 일제 강점기 때 발행된 조선교통지도에 의하면 앞산 일대의 구릉지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들 중 일부는 대구천으로, 일부는 현재 대백프라자 옆을 지나 대봉교와 수성교 사이의 신천으로 유입하는 지류로 구분되는데, 특히 후자의 신천 지류를 편의상 이천천으로 부르하고자 한다.
- 5) 본 내용은 경북대 명예교수이신 윤용진 교수가 2000년 대구중구문화원에서 발행한 건물바위 제2집에 수록된 내용과 윤용진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것이다.

文獻

김성우, 2004, 조선시대 대구읍세의 팽창과정, 대구사학, 75, 65-98.

대구광역시 중구청, 1998, 경상감영 사백년사, 신흥인쇄소.

대구중구문화원, 2000, 건물바위, 2, 동화인쇄사.

매일신문, 2004/7/17일자.

송언근 외 8인, 2002, 지리로 읽는 대구 이야기, 도서출판 영한.

이정웅, 2000, 대구가 자랑스러운 12가지 이유, 북랜드.

이정웅, 1993, 이정웅 산문집 팔공산을 아십니까, 그루.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전영권, 2000, 금호강 유역의 역사지리적 문화, 대구예술, 102, pp.17~19.

전영권, 2003, 이야기와 함께하는 전영권의 대구지리, 도서출판 신일.

조선사연구회, 2002, 조선시대 대구의 모습, 계명대학교출판부.

조선사연구회, 2002, 조선시대 대구 사람들의 삶,

계명대학교출판부.

古文獻

경상도지리지, 조선총독부중추원 영인본(1976).
 국역 동사강목,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1982).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1978).
 국역 증보문헌비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6).
 대구읍지, 김규택·박대현 편역(1997).
 대동지지, 김정호, 한양대학교 부설국학연구원 원
 본영인(1976)
 삼국사기, 김부식, 이병도 역주(1983).
 삼국유사, 일연, 이민수 역(1983).
 세종장헌대왕실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72).
 CD-ROM 고려사, 열린데이터베이스연구원(1998).
 CD-ROM 국역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CD-ROM
 간행위원회(1995).
 역주 대동수경, 정약용, 강서영·김승필 등(2001).

古地圖

광여도
 경상도지도
 달성도
 대동여지전도

동국지도
 동국팔도여지도
 여지도
 여지전도
 조선방역지도
 조선전도
 조선팔도고금총람도
 조선팔도여지도
 조선팔도지도
 조선팔도총람지도
 조선팔도통합도
 좌해분도
 천하대총일람지도
 팔도지도
 팔도총도
 해동지도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해좌전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
 화동고지도

(접수 : 2004. 9. 21, 채택 : 2004. 11. 9)